

지리산 업고 섬진강 품고 경계를 넘어... 동서 관광통합의 핵

뒀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13 관광의 중심 '구례'

구례구역을 향해 섬진강변을 걸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옥섬도, 성섬도 부질없다는 것을, 잘난 놈, 모난 놈 모두 받아 주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평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손 닿지 않는 먼 곳에서 빛나는 아련한 별도, 무심코 지나쳐버린 길섶 도리지꽃도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구례에서는 늘 새웃을 입는 듯하다. 화엄사의 풍경소리며, 노고단의 일몰이며, 강물에 어린 햇살이며... 섬진강에 닿아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구례를 다녀오면 몸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후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잠시라도 욕망에 찌든 도시의 옷을 벗고, 자연이 선사한 '섬진강의 옷'으로 갈아 있었으니깐.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구례 일대의 관광 자원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리산의 풍부한 자연과 섬진강의 풍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화 자산이다.



구례는 섬진강 일대 지자체 관광지를 함께 육성해 동·서간 화합을 이끌어 내는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사진은 구례 일대 섬진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관광객을 모습.



구례 산동면 산수유 마을

◇봄이면, 꽃 천지=지리산 자락과 섬진강을 품은 구례는 부자다. 재정자립도나 지역총생산을 따지기 이전에 풍경 자체가 구례의 무한한 자원인 셈이다.

구례의 봄은 만발한 꽃이 알린다. 한국관광공사 등이 해마다 봄 여행지로 손꼽는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는 산과 들녘에 산수유가 만발한다.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는 노란 산수유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전국 산수유의 70%가 생산되는 산동면 중에서도 해발 480m에 위치한 상위마을 산수유가 유명하다. 산수유나무 2만7000여

문화·역사 자산 수두룩... 봄이면 산수유 절경

상·하위 마을, 사성암 등 관광객 발길 줄이어

8개 지자체, 축제 통합 등 관광상품 개발 모색

그루가 뻗뻗한 이곳은 산수유 꽃에 갇힌 마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19살 처녀가 남긴 '산동예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슬픈 역사를 아는지, 해마다 봄이면 길 양쪽 산수유나무가 만드 꽃터널은 여행객을 노랗게 물들인다.

상위마을 그 아래쪽으로 하위마을, 너럭바위와 계곡이 아름다운 대평·반곡마을, 송원리조트 뒤편 사포마을 등 발길을 사로잡는 옛마을이 많다.

해발 530m 남짓의 오산 정상에 있는 사성암도 빼놓을 수 없는 구례의 관광지다. 사성암 밑 아래로 섬진강이 굽어치고, 맞은 편에선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관광으로 하나 되기=구례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육성만으로도 동서가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남과 호남을 오갈 수 있는 SOC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영호남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도 필요하다.

관광 산업에는 나라와 지역간 경계가 없다. 또 국가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게 관광 산업 육성이다. 섬진강 일대 관광을 활성화하면 구례, 곡성, 순천, 여수, 광양, 하동, 남해, 진주 등 영호남 지역들이 고무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섬진강 일대의 봄꽃 축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지역별로 열리는 봄 축제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영호남 축제가 함께 열린다면 정부에서도 예산 등 지원이 수월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져 관광객도 더욱 즐거워질 수 있다.

그 핵심 지역 중 하나가 지리산·섬진강 관광의 중심인 구례다. 또 구례군은 모범적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관광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순천시와 지자체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을 통한 관광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구례군은 순천시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리산과 섬진강, 순천만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만정원 등 순천시 직영 관광지 5개소를 찾는 구례군민들은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받으며, 구례 야생화 압화 전시관과 지리산 가족호텔을 찾는 순천시민 역시 50%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구례와 순천의 협력 과정에 동서통합지대의 의미가 담겨있다. 섬진강 일대 영호남 지자체가 관광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영호남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영호남 청소년 '화합 한마당'

5월 17일 송림숲 일대에서 축제

동서 화합을 위해 청소년들이 섬진강 일대에 모여 흥겨운 축제를 연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영호남 청소년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연 영호남 스포츠펠을 올해는 영호남 청소년축제로 승격해 오는 5월 17일 섬진강과 송림숲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하동초등학교, 하동중학교, 하동중앙중학교 등 하동지역 3개 학교와 다압초등학교, 다압중학교, 구례북중학교 등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의 3개 학교가 참가한다.

학생들은 카약,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 체험활동과 가족 포토타일 등 행사에 참여해 화합을 도모하고 기초체력을 기른다.

하동교육청은 올해 특색사업으로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25일 학도병과 북한 정규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화개면 탑리에서 숨진 60여 명의 순천중학교 학생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어 나라 사랑 교육도 강화한다.

추모제에 앞서 화개면 탑리에 학도병이 싸우던 참호 등을 재현한 체험장을 조성해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호남 청소년들의 화합과 나라 사랑 교육을 위한 하동교육청의 특색사업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